

중국의 스타트업 기업

박상하 김광수경제연구소 팀장

주요내용

- ◆ (현황) 중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창업열기가 매우 뜨거움.
- ◆ (원인과 분석) 중국의 인터넷 보급 및 모바일 지급결제와 빠르게 확산되어, O2O 업체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, 중국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- ◆ (전망과 시사점) 중국 정부의 철저한 정책적 지원 덕에 중국의 창업 열기와 스타트업 신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임.

1. 이슈 현황

■ 중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

- 중국 인터넷 3대 공룡인 BAT(바이트, 알리바바, 텐센트)와 화웨이 외에도 샤오미, 디디추싱, 아러머 등 신생업체들이 급성장
 - 신생업체들은 주로 O2O 업체들임.
-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며, 2017년 3월 기준으로 전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총 186개 업체이며, 기업가치는 6,470억 달러
 - 우버가 680억 달러로 1위이며, 중국의 샤오미와 디디추싱이 2, 3위를 차지
- 상위 20개 업체 중 11개가 미국 업체, 7개가 중국업체로 미국과 중국이 양분했음.
 - 신생업체들은 주로 O2O 업체들임.

표1. 글로벌 상위 20개 유니콘

| 순위 | 기업명 | 기업가치 (억달러) | 국가 | 분야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
| 1 | Uber | 680 | 미국 | 공유경제(차량) |
| 2 | Xiaomi | 460 | 중국 | 스마트폰/디바이스 |
| 3 | Didi Chuxing | 338 | 중국 | 공유경제(차량) |
| 4 | Airbnb | 300 | 미국 | 공유경제(부동산) |
| 5 | Palantir Technologies | 200 | 미국 | 빅데이터 분석 |
| 6 | Lu.com | 185 | 중국 | 핀테크(P2P 대출) |
| 7 | China Internet Plus | 180 | 중국 | 전자상거래 |
| 8 | WeWork | 169 | 미국 | 공유경제(사무실) |
| 9 | Flipkart | 160 | 인도 | 전자상거래 |
| 10 | SpaceX | 120 | 미국 | 항공우주 |
| 11 | Pinterest | 110 | 미국 | 소셜(이미지 공유 및 검색) |
| 12 | Dropbox | 100 | 미국 | 웹기반 파일공유 |
| 13 | Infor | 100 | 미국 | 비즈니스 S/W |
| 14 | DJI Innovations | 100 | 중국 | 상업용/개인용 드론 |
| 15 | Stripe | 92 | 미국 | 핀테크 |
| 16 | Spotify | 85 | 미국 |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|
| 17 | Zhong An Insurance | 80 | 중국 | 핀테크(보험) |
| 18 | Snapdeal | 70 | 미국 | 전자상거래 |
| 19 | Lianjia (Homelink) | 62 | 중국 | 전자상거래 |
| 20 | Global Switch | 60 | 영국 | 데이터 센터 |

자료원: CB Insight, 한국무역협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

- 유니콘기업 186개 업체의 국가별 분포를 봐도 미국기업이 99개, 중국 기업이 42개로 3/4를 차지
- 한국 업체는 쿠팡(25위), 엘로모바일(31위), CJ게임즈(69위) 3개 업체만 순위에 포함됨.

■ 중국의 뜨거운 창업 열기

- 설립 4~5년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중국의 상업 열기는 매우 뜨거움.
- 매일 4만개 이상의 신생업체가 회사로 등록

■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- 디디추싱

- 디디추싱의 전신은 베이징샤오취기술회사로 애플 iOS 기반의 택시 호출서비스를 2012년에 출시하며 성장한 회사
- 2013년엔 텐센트로부터 1,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고, 2016년엔 애플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받음.
- 2016년 8월엔 우버차이나와 합병

- 디디추싱은 택시 호출 서비스 외에도 운송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며 버스임대까지 총괄하는 토탈형 서비스로 확대
 - 비슷한 목적지 승객과 동승하는 카풀 형태의 순풍차(順風車)
 - 택시가 아닌 승용차로 영업하는 콰이차(快車)
 - 대리운전 서비스(代駕)
- 우버차이나와 합병한 이후 디디추싱의 시장점유율은 93%에 달하고 있어,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은 디디추싱이 독점
 - 이다오용차(易到用車), 선저우완차(神州專車), 베이징쇼치그룹(北京首汽集團), 상하이다중그룹(上海大眾集團) 정도가 경쟁자임.
-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로 수익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음.
 - 2016년 중국 정부는 ‘인터넷예약 택시 경영서비스 권리 잠정법’을 발표하며,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, 정부의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음.
 - 베이징시는 2017년 4월부터 인터넷예약택시 기사에겐 베이징시 호구를 택시차량엔 베이징시 등록을 규정
 - 디디추싱의 기존 기사 및 차량 가운데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과 기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■ 중국 푸드테크의 선두 - 어러머

- 중국 O2O 음식배달 업체별 점유율(2016년 기준)에서 어러머가 34.6%로 1위
 - 메이투안 와이마이가 33.6%, 바이두 와이마이가 18.5%
- 어러머의 배달시스템은 회사 전속 라이더, 협력업체(음식점) 배달시스템, 디디추싱으로 구성
 - 3 Km 이상 떨어진 경우, 디디추싱의 경차를 배달에 이용
 - 경쟁업체인 바이두 와이마이는 전속 라이더, 협력업체(음식점) 배달시스템 외에도 주문 폭주시간이나 장거리 배송에 순평익스프레스를 활용
- 어러머는 2009년 창업하여 등록 고객 수는 5천만명에 육박하고, 제휴 음식점 수는 50만개를 확보하였으며, 1일 평균 거래액은 1억 위안(약 165억원)을 상회
- 어러머의 회사 대표 장쉬하오는 상하이교통대학 대학원생 시절 경험에서 창업
 - 어러머의 의미는 ‘배고파?’임.
 - 초창기엔 상하이교통대학 주변 식당의 음식을 상하이교통대학 학생들에게 배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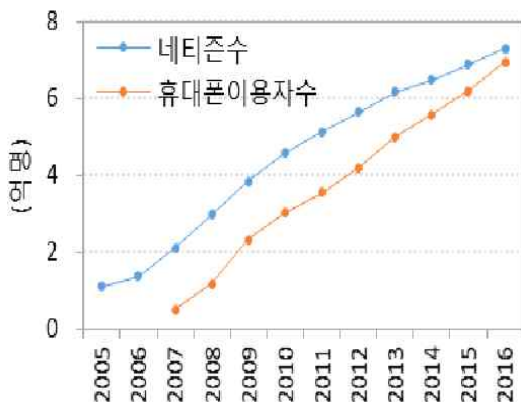
- 초창기엔 전화주문 방식이었으나, 호흥이 좋아서 2010년에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
- 어려머는 텐센트, JD, 세쿼이어 캐피탈, 화롄기업 등 다수 기업에게서 투자를 받았고, 2016년엔 알리바바로부터 12.5억 달러 투자를 받아서 알리바바 계열로 편입되었음.
- 2016년까지 유치한 투자액이 무려 24억 달러(약 2.7조원)

2. 원인과 분석

■ 중국의 인터넷 보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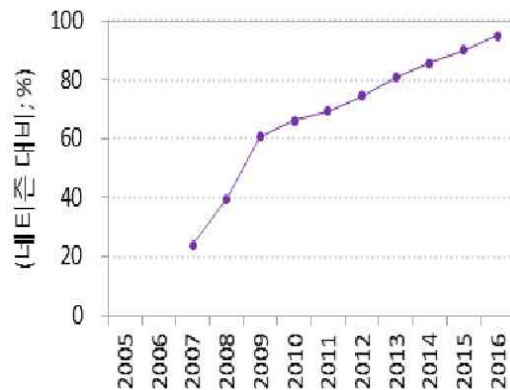
- 중국의 2016년 인터넷 사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53%에 육박
 - 중국의 2016년 인터넷 사용인구 수는 전년대비 4,299만 명 증가한 7억 3,125만 명
 -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7,550만 명 증가한 6억 9,531만 명

그림1. 중국의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수



자료원: CNNIC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

그림2. 휴대폰 인터넷 비중



자료원: CNNIC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

- 농촌지역까지 인터넷 통신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, 중국의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

■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O2O 업체들의 성장 배경이 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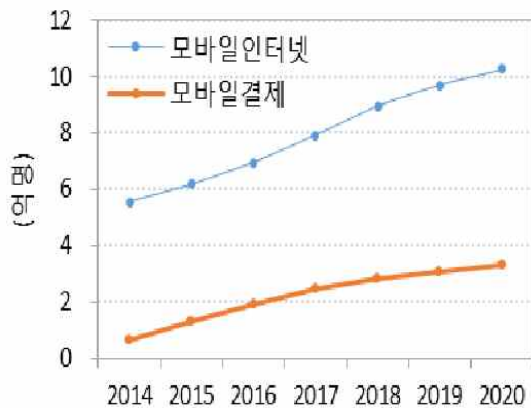
-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5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결제시장으로 성장
 -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, 2016년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배 급증한 38조 위안에 육박

- 미국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2,500~2,600억 달러

□ 모바일 결제 이용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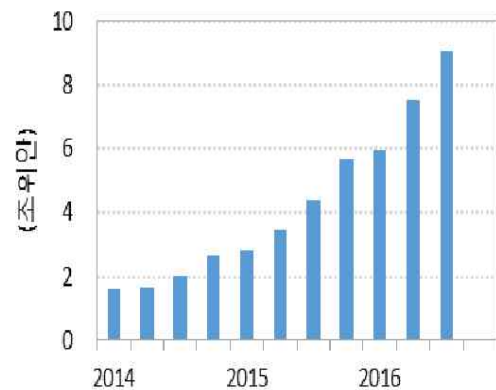
- 2016년 모바일 결제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46% 증가한 1.96억명으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28.1% 수준
- 2020년엔 모바일 결제 이용자수가 3.5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그림3. 모바일결제 이용자수



자료원: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 2016~2020년 수치는 추정치임.

그림4. 제3자 이통결제시장 규모-분기별



자료원: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. 2016~2020년 수치는 추정치임.


■ 중국 정부는 ‘인터넷+’ 전략으로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.

- 중국의 ‘인터넷+’ 전략은 모바일 인터넷을 비롯하여,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산업과 융합시키겠다는 산업정책
- 스마트제조 강국전략도 ‘인터넷+’ 전략의 일환일 정도
 - 기존의 제조업을 ‘인터넷+’ 전략에 따라 디지털화, 네트워크화, 스마트화하려고 함.
- ‘인터넷+’ 전략은 제조업 외에도 유통업, 농업, 에너지, 금융, 사회서비스, 물류, 교통, 환경, 창업 등 11개 분야로 접목시킬 계획

3. 전망과 시사점

■ 중국 정부의 철저한 정책적 지원덕에 중국의 창업 열기와 스타트업 신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임.

□ 시진핑 정부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하고,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였으며, 지급결제시장을 인터넷 업체들에게 개방하는 등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했음.

□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투자촉진 정책들이 다수 시행 

참고문헌

- 2017.04.04. 중국경제동향(17-14)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(1)
- 2017.04.11. 중국경제동향(17-15)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(2)
- 2017.04.18. 중국경제동향(17-16)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(3)
- 2017.04.25. 중국경제동향(17-17)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(4)

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